

# 유가 상승 지속시 국내물가 최대 0.8%p 더 오른다

**KDI 유가상승 경제 파급효과 보고서**  
유가별 경제영향 시나리오 분석  
유가상승 글로벌 경기회복 동반  
배럴당 60달러 달성시 구매력 감소

최근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유가 상승 폭에 따라 최대 0.7%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보고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통해 올해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률이 0.5~0.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상승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0.4~0.7%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유가 변동이 국내 경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에 미치는 영향을 고유가와 저유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물가 상승 폭은 0.6%포인트로 예상했다. 여기서 배럴당 70달러까지 올라가는 고유가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0.8%포인트, 55달러까지 내려가는 저유가에서는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국제유가 상승

은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 시나리오에는 성장률 0.7%포인트, 저유가에서는 0.5%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예비적 수급 및 투기 충격은 그 자체로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최근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 내용을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유가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요인만을 분석한 수치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KDI 설명이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가계는 구매력 감소, 기업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KDI는 올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를 경우 전체 경제의 구매력이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비석유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가계의 소비 지출 부담은 최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가 전체 구매력 감소분(1%)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구매력에서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2%, 18.4%에 불과하다.

천 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석유류, 전기요금 등 생활필수품에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속에 국제유가가 추가로 오를 경우 유가 영향을 받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KDI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유가만으로 물가상승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2분기에는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효과가 해소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재계 지주전환...'서 계속

## 카카오, 모빌리티 등 신사업 호조... 역대최고 실적 달성

1분기 매출 1조2580억 기록  
영업익 1575억 전년동기비 79% ↑

카카오가 인건비 10%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매출이 모빌리티·페이 등 신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79%나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이는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이 인건비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채널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고,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을 두 자릿수로 늘리는 등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는 6일 올해 1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 늘어난 1조25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5% 증가한 1575억원을, 영업이익률은 12.5%를 기록했다.

1분기 신사업 매출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과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 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1898억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중

(카카오 2021 1분기 실적요약)

매출	1,258
플랫폼 부문	668.8
특비즈	361.5
포털비즈	117.5
신사업	189.8
콘텐츠부문	589.2
게임	130.3
뮤직	156.8
유료콘텐츠	174.7
IP 등 기타	127.4
영업이익	157.5

단위: 십억원 /카카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668.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361.5억원을 기록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4%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증가한 117.5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589.2억원을 기록했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글로벌 거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7%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한 174.7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130.3억원을 달성했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56.8억원을 기록했다.

IP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영상 콘텐츠 매출 증가와 음반 유통 호조로 전 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27.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1년 1분기 영업비용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1조1004억원으로, 자사주 상여 지급과 신규 채용 확대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마케팅 비용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1분기 '카카오 지갑'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는데, 카카오톡만으로 연말정산 및 정

부24간편로그인이 가능해졌으며, 지갑 QR로 오프라인 사용처가 확대됐다"며 "지갑이 보관된 신분증을 기반으로 프로필 인증이 가능해졌으며, 인물 검색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또 "하반기를 목표로 카카오 오투 채널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비즈니스적으로 특 채널을 활용해 효과를 증명했듯, 콘텐츠 생산자와 창작자가 특 채널을 활용해 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비즈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해외 매출 비중도 두 자릿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페이와 모빌리티 신사업이 터어라운드 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여, 연간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이 회사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단기적 성과를 내기 보다 공격적 투자에 나설 계획이며, B2B(기업간) 사업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운정 시전문기자 echo@

## 페어트레이딩 투자기법 보유기간 길수록 위험도 ↑

예를 들어 지주사(주)한화는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에 대한 지분율을 37%, 34%씩 갖고 있다. 단순 지분율 비교로 페어트레이딩을 활용할 경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 한화에너지에 47%(34/(34+37)), 한화솔루션에 53%의 비중을 두는 방식이다. 여러 개의 계열사 지분을 가중평균으로 합성한 후 지주사와 계열사의 페어를 구성해 더 높은 쪽에 투자 비율도 높이면 된다. 계열사 합성 비율에 대해서는 지분율뿐 아니라 지주사와의 상관관계를 따지거나 계열사 간 투자 금액을 따져 결정할 수도 있다.

순환출자 구조가 개선된 곳도 페어트레이딩 대상으로 꼽힌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로 압축된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지난달 30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에 따라 0.06%에서 10.44%로 높아졌다. 그가 삼성물산 최대주주이자 삼성생명 2대주주로 올라서며 삼성전자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페어트레이딩 기법을 활용할 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 커진다. 스프레드의 절대적인 수준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공매도 규모, 종목의 일일 거래량, 시장 변동성, 주요 거래자들의 수급 상황까지 따져야 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둘 사이 가격 차이가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면 곧바로 청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며 "투자 진입과 청산 기준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원금의 5~6%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이를 충족하면 곧바로 차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했다.

/송태화 기자 avin@

## 잘 나가는 수입차... 4월 국내 판매량 10만대 육박

메르세데스-벤츠 등록대수 1위

글로벌 수입차 업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특히 독일 3사의 흥행에 힘입어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가 10만대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4월 수입 승

용차 신규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2만5578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누적으로는 총 9만7486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다만 4월 신규등록대수는 3월에 비해 6.3% 줄었다. 임한규 한국수입차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으로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8430대로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BMW가 6113대로 2위를 기록했으며, 아우디(1320대), 볼보(1263대), 폭스바겐(1080대), 미니(1051대), 지프(1001대) 등의 순이었다. 이어 포르쉐(978대), 포드(902대), 렉서스(826대), 쉐보레(737대), 도요타(523대), 링컨(447대), 혼다(235대), 푸조(221대), 랜드로버



벤츠 더 뉴 E-클래스

(119대) 등이 뒤를 이었다.

4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3월에 이어 벤츠의 E 250(1499대)이 차지했다.

/양성운 기자 ysw@